

발성의 측면에서 본 조용필 창법에 관한 연구

조태선*

*청운대학교 방송음악과

e-mail:entheos@korea.com

A Study of Vocalization in Cho Yongpil's Vocal Technique

Tae-Seon Cho*

*Dept of BroadCasting Music, Choongwoon University

요 약

팝음악이 국내에 들어오면서 우리와는 체격조건이 다른 그들의 노래를 부르기 위해 가수들은 부단히 애를 써야 했으며,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다. 때론 무리한 발성으로 인해 성대가 손상되는 경우도 비일비재 하였다. 가수 조용필은 자신의 신체적인 한계를 극복하여 가창력을 최대화 시킬 수 있는 해법을 우리의 국악에서 찾았다. 그 대표적인곡이 바로 “창밖의 여자”인데 이 노래는 조용필의 최고의 히트곡이자 가요발성에 있어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어준 곡이다.

본 연구에서는 당시의 시대적, 음악적인 배경 등을 통해 가요계의 전반적인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파악하여 왜 그 노래가 당시엔 획기적인 창법이었는지 그 이유를 제시해 보고자 한다. 또한 “창밖의 여자” 의 곡의 흐름과 감정처리 방법, 테크닉 등을 분석해 봄으로써 호흡과 발성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표현되었는지를 연구해 보도록 하겠다.

1. 서론

팝음악이 우리나라에 소개 된 것은 해방 후 미군정이 시작되면서부터 인데 본격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한 건 한국전쟁 이후 미군이 국내에 주둔하게 되면서 부터이다. 당시 미 8군 쇼 무대는 국내 모든 음악인들이 서고 싶어 하는 꿈의 무대였다. 국내에는 팝음악을 연주할 수 있는 곳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미군 부대마다 설치되어있는 클럽은 국내 음악인들에겐 자신의 기량을 펼칠 수 있는 최고의 무대였다. 따라서 6-70년대에는 거의 모든 가수나 음악인들이 8군 무대를 통해서 데뷔를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팝음악의 도입은 창법 즉 발성법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Jazz, Blues, Rock & Roll, Soul 등은 각각의 장르마다 노래를 부르는 창법이 다르기 때문에 국내 가수들에게 있어서는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었다. 흑인음악인 Jazz나 Soul, 백인들의 음악인 Blues나 Rock & Roll 등의 음악은 흑인이나 백인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왜소한 체격의 동양인들이 부르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다. 체격이 크다는 것은 입이나 성대, 폐, 가슴 등의 발성기관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들과는 기본적인 성량이 확연히 차이가 나며, 호흡의 양도 우리가 적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그들의 노래를 아무리 똑같이 부르려고 해도 음정, 박자만 맞출 수 있을 뿐 노래의 느낌 즉 Feel 등은 똑같이 구사할 수가 없었다.

당시 미8군 무대에서 활동하던 대다수의 음악인들이 그러한 차이를 극복하기위해 부단히 노력을 했다. 그 결과 소기의 성과를 달성한 가수들도 있었지만 천부적으로 훌륭한 성대를 지니고 태어난 사람들에게 한하였고, 많은 경우 무리한 연습으로 인해 성대가 손상되어 대화할 때의 목소리마저 변해버리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는 결국 자기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억지로 끼어 입으려고 한 것과 같은데 결과적으로 성대에 무리를 주게 되어 손상된 것이다.

이러한 것을 해결한 것이 바로 가수 조용필이다. 조용필은 외형적으로도 체격이 작을 뿐만 아니라 소리를 낼 수 있는 입이나 성대 역시 일반인들보다도 작았다. 가슴이 크고 입과 성대가 커야 큰소리를 낼 수 있는 조건과는 전혀 부합되지 않는 체형이었다. 흑인음악을 좋아했던 그는 흑인들과 같은 소리, 창법을 구사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그 해법

을 우리의 국악에서 찾았다. 1979년에 발표되어 공전의 히트를 기록했던 “창밖의 여자”는 판소리에서의 샤우팅 창법이 도입된 곡으로 가요발성법에 있어 획기적인 전환점을 만들어준 곡이다.

본 연구는 조용필의 노래 “창밖의 여자”를 통해 호흡과 발성이 어떻게 하였으며 판소리에서와 같은 창법을 어떻게 인용해 도입시켰는지에 대해 분석해 보고자 한다.

2. 본 론

2.1 배경

1950년생인 조용필은 다니던 고등학교도 중도에 그만두고 1968년 데뷔한다. 곧바로 “에드킨즈”란 밴드를 만들어 영등포 미군헌병대 클럽무대에서 연주를 시작했으며, 이후 “화이트핑크스”, “김트리오” 등의 밴드를 거치면서 문산, 의정부, 이태원 등 여러 미군 클럽에서 연주를 한다. ‘화이트 핑거스’는 당시, 실력 있는 밴드들의 집합소였던 이태원까지 진출한 인정받는 팀이었는데, 1년 반 동안의 활동은 집에서 형이 그를 찾아오는 것으로 마감됐다. 그러나 ‘화이트 핑거스’의 활동은 제임스 브라운, 윌슨 피케트, 템테이션 등의 흑인음악에 심취하게 되었으며 그의 음악인생에 커다란 전환점이 됐다.

그 당시 조용필은 가수라기보다는 기타연주자로 뛰어난 연주 실력을 선보였다. “김트리오” 시절엔 훗날 “사랑과 평화”의 기타리스트였던 최이철과 투 기타시스템으로 선의의 경쟁을 벌이기도 했다.¹⁾

“김트리오” 시절 앨범을 한 장 녹음하기도 했지만 발매되진 않았으며, 군 재대 이후 킹레코드사에서 앨범취입을 제안 받으며 1976년 “돌아와요 부산항에”가 발표된다. “돌아와요 부산항에”는 마침 제일동포 모국방문 행사에 힘입어 부산에서부터 인기몰이를 시작해 전국적으로 공전에 히트를 치게 된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과거에 대마초 파동이 연예계를 휩쓸었을 때 대마초를 피웠던 전력이 드러나 활동을 금지 당하게 된다.

대마초 파동으로 방송활동이 금지되었던 4년간의 공백은 공교롭게도 조용필에게 기타 연주자가 아닌 진정한 가수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게 된다. 이 무렵 그는 자신의 신체적인 한계를 극복하는 새로운 창법을 개발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게 된다. 자신의 작은 입과 성대로는 해결할 수 없는 과워풀한 성량을 만들어내기 위해 온몸을 활용하는 호흡과 발성법을 개발해내며 국악 창법도 이시기에 익히게 된다.

그는 레이찰스, 제임스브라운, 스티비원더 등 흑인 음악을 좋아했다. 같은 서양인 이라 해도 흑인가수들의 노래는 백인가수들 보다 성량이나 호흡의 양이 더욱 뛰어나다. 더구나 흑인 음악은 우리와는 전혀 다른 독특한 리듬이 있다. 따라서 Feel을 내기 위한 테크닉도 상당히 다르다. 그는 그러한 흑인노래를 부르기 위해 우선 목소리를 만들기 시작했으며 작은 몸에서 큰소리를 만들어내기 위해 소리의 극한에 도전하는 듯한 혹독한 훈련을 하게 된다. 복식호흡을 통해 최대한 몸속에서 끌어올려 소리를 내며 계속적으로 목을 혹사시켜 튼튼하게 만드는 훈련방법을 선택했다.²⁾

판소리에서 해법을 찾은 것도 그 때문이었다. 판소리의 경우 작은 체구에서 순간적으로 밖으로 뻗어내는 소리의 파워는 엄청나다. 그는 거기에 착안하여 국악의 창법을 연구하고 반복 훈련하여 본인의 창법에 대입시켰으며 그를 가요에 응용하여 표현하였다.

조용필이 국악 창법을 익히기 위해 명창에게 사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그는 스스로 창이나 판소리를 흉내 내어 따라 부르면서 익힌 것이다. 당시 많은 가수들이 조용필의 영향으로 판소리 명창에게 사사를 받는 것이 대 유행이었는데 정작 조용필 자신은 정식으로 사사를 받은 적이 없고 말이 전해지는 과정에서 왜곡되어진 것이다.³⁾

1) 당시의 밴드 구성은 보통 드럼, 베이스, 기타, 키보드 등의 4-5인조의 기본악기편성이거나 혹은 트럼펫, 색소폰등의 브라스가추가되어 7-8인조로 편성되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악기 연주 없이 노래만 담당하는 싱어가 있기도 하였지만 여자 싱어들이 대부분이었고 남자들은 기타, 키보드 등의 악기를 연주하며 노래하는 경우가 많았다. 싱어와 악기연주를 병행할 경우 노래가 우선시되어 악기연주는 보조역할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조용필의 경우는 싱어를 담당하면서도 그 당시 국내최고의 수준의 기타리스트들과 경쟁할 정도의 기타실력을 갖추고 있었다.

2) 조용필의 노래 연습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다. 소리는 계속해서 소리를 질러 단련시킨다는 것인데 예를 들어 노래 연습을 할 때 쉬운 우리 가요보다는 팝 위주로 연습을 하고 또 원래의 키(Key)보다 두 키(Key) 정도 높게 연습하는 것이 그것이다. 그렇게 연습하다 보면 나중에 원키로 부르게 되면 아주 편하게 부를 수 있다는 원리로 매우 단순하다.

3) 1987년 봄 본인이 지구레코드사로 앨범 녹음을 하고 있는 조용필을 찾아갔을 때 그는 내게 이렇게 말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판소리 사사를 받았다고들 하는데 그렇지 않아 그냥 혼자서 연습한거야. 대중가요하고 국악은 엄연히 소리가 다른데 정식으로 사사를 받으려면 안 되지. 그렇게 했다가 소리가 장하는 것처럼 걸쭉하게 바뀌어 버리면 안 되거든. 그냥 소리를 따라해 보면서 우리 가요에 응용을 하는 것이 맞는 거야” .

2.2 분석

이 노래는 4/4 박자 Slow Go-Go형태의 느린 발라드곡이다. 대개의 경우 이런 곡들은 어쿠스틱 피아노와 대편성의 현악기를 사용하여 편곡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조용필은 5인조 밴드의 음원만을 사용하였다. 전주부에서는 전자피아노 Backing에 맞춰 신디사이저를 이용하여 스트링 소리를 구현하였고, 노래의 앞 1절 부분은 전자 피아노솔로에 맞추어 노래를 하였다. 후렴부에 들면서 드럼, 베이스, 기타가 연주되면서 All Section 이 이루어지면서 곡의 클라이막스를 표현했으며 다시 간주부에서는 Slow Hand 주법의 기타간주가 멜로디를 선이 굵게 연주하면서 다소 슬픈 듯한 느낌을 표현하였다. 그 후 다시 후렴으로 이어져 격정적인 연주로 곡의 후반부를 연주하면서 끝나게 된다. 이러한 형태의 편곡스타일은 발라드 편곡의 정설이 되어 나중에 모든 발라드 스타일의 음악 편곡은 이러한 형식을 따르게 된다.

그러면 지금부터 “창밖의 여자” 가창법에 대해 세부적으로 연구해 보도록 하겠다. 편의상 본 연구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후렴부분에 대해 연구해 보도록 하겠다.

이 노래는 크게 전반부, 후반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G] - [L] 부분이 후렴부분에 해당한다. 전반부는 도입부로서 사랑의 슬픈 마음을 “눈물”, “흰손”, “강물” 등으로 잔잔하게 표현하였으며, 후반부에서는 아픔을 원망하는 듯한 느낌을 호소력 있게 표현하였다. 또한 대부분의 발라드곡이 그렇듯이 노래에서도 후반부에 곡의 느낌을 집중한 것을 볼 수 있다.

[G] 부터는 곡의 이곡의 후렴구에 해당한다. [G] [H] 와 [I] [J] 에서는 “누가 사랑을 아름답다 했는가” 의 가사가 두 번 반복 된다. 이 부분은 “창밖의 여자” 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으로 같은

말을 반복하여 강조했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대중들의 귀에 확실한 메시지를 줄 수 있는 역할을 하게 하였다. [G] 부분의 “누가 사랑을 아름답다 했는가” 는 서서히 호흡의 양을 늘려가며 발성을 무게감 있게 하여 감정을 고조시키는 역할을 하였고 [I] 부분에서는 최대한 목소리를 쏟아내어 발성을 최고조로 이끌어 내었다. 이 부분에서 그의 가창력의 진가를 볼 수 있으며 국악의 샤우팅 창법 즉 가슴속에서 소리를 끌어내어 쏟아내는 조용필만의 창법이 표현되는 부분이다.

[I] 의 “누가” 는 끌어당기며 소리를 냈고, “사랑을” 은 약간의 호흡과 함께 밀어내었고 “아름답다” 에서 국악 창법을 응용하여 목소리를 최대한으로 끌어냄과 동시에 액센트를 주었다. [J] 뒷부분 “차라리” 와 [K] 의 “차라리” 부분까지 앞의 감정을 연결시켰으며 “그대에 흰손으로” 에서는 소리를 끌어내기 보다는 감정으로 처리함으로써 마지막 부분에 여운을 주었다. 일종에 포즈 부분으로 너무 과도하게 감정이 계속적으로 이입되다 보면 다소의 거부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감정에 다소 여운을 두었으며 이는 [L] 의 “나를” 부분까지 지속되다가 “잠들게 하라” 에서 또 한 번 가슴속에서 소리를 쏟아내는 조용필만의 창법으로 마무리 하게 된다.

조용필의 창법에는 몇 가지 필수적인 요소가 있다. 첫째 복식호흡이 되어야 한다. 목소리에 호흡을 섞을 수 있는 능력은 가슴에서 소리를 끌어낼 수 있어야 하는데 이는 복식호흡이 기초가 되어야 한다. 두 번째 충분한 발성훈련이 되어야 한다. 목이나 콧소리만을 사용하는 발성법으로는 절대로 성량 있는 풍부한 소리를 낼 수 없기 때문에 가슴통을 활용한 진성 발성 훈련이 전제되어야 한다. 세 번째는 표현력과 테크닉을 갖춰야 한다. 가수는 감정을 얼굴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소리로 표현해야 한다. 따라서 소리를 던지듯, 끌어올리듯, 이야기하듯, 쏟아내듯 등의 표현은 고도의 테크닉을 갖추지 않고는 절대 구사 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국악발성의 응용이다. 이것이 조용필 창법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데 고음부에서 가슴의 통 소리를 최대한 활용하여 진성으로 창을 하듯 쏟아내는 발성이 되어야 한다.

사실 가요를 국악창법으로만 부르게 되면 노래가 너무 거칠어진다. 따라서 조용필은 그러한 창법을 강조하고 싶은 부분에 사용함으로써 그 곡에 있어서의 포인트 역할을 충실히 하였고 아울러 노래를 상당히 돋보이게 하는 역할도 하였다.

3. 결론

가창력의 기본은 소리를 크게 내는 것이다. 그러나 무조건 소리를 크게 내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큰 소리를 내면서도 듣기 좋은, 아름다운 소리를 내야 한다. 또한 오래도록 소리를 내도 변하지 않는 튼튼한 목소리를 가져야 한다. 이러한 모든 것을 갖추었을 때 가창력이 뛰어나다고 예기하며 모든 가수들이 이러한 상태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한다.

창밖의 여자는 히트곡으로서 뿐만 아니라 가수들의 발성에 있어 일대 전환점이 되었다. 이러한 발성법은 체격이 작거나 입이 작아도 본인의 훈련여하에 따라서 충분히 큰 소리를 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해 주었고, 큰 소리 뿐만 아니라 음역의 확장까지도 가능하게 해주었다. 보컬들에게 있어 이러한 발성법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며 이러한 훈련과정을 거친 가수들이 많이 배출될 때 가요계는 발전할 것이다.

참고문헌

- 1) 임진모 우리대중음악의 큰 별 민미디어 2004
- 2) 박준흠 한국 대중음악 100대 명반 선 2008
- 3) 정혜윤 그들은 한권의 책에서 시작되었다 푸른숲 2008
- 4) 이종현 조용필 그대의 영혼을 빼앗고 싶다 한국문원 1998
- 5) 홍호표 조용필의 노래, 맹자의 마음 동아일보사 2008
- 6) 임진모 우리의 명반을 찾아서 www@izm.co.kr 2004. 8
- 7) 동서마당 [Success Partner] 2003년 10월호
- 8) 임진모 한국 대중음악 스타 열전 ④ 신동아 2009년 5월호
- 9) 임소혁 음악가 조용필의 모든 것 2004.03
- 10) 이현석 이럴 땐 이런 음악 돌을새김 2004.06
- 11) 조태선 대중음악의 호흡과 발성에 관한 연구 중부대학원 2005
- 12) 문영일 발성과 공명 청우 1991
- 13) 남도현 호흡과 발성 군자출판사 2007
- 14) 정병욱 한국의 판소리 집문당 1999
- 15) 박승희 가수가 되자 녹진 1994
- 16) <http://www.choyongpil.net>